

# “우리 마음 속 ‘두고 온 아이’ 소환했죠”

배세복 시인 ‘두고 온 아이’ 펴내  
광주일보 신춘문예로 등단  
잠재 기억 속 오래된 이야기 풀어  
제 1회 선정작가상 수상도

“최신 시의 경향이 ‘상상력’이지만 제 시의 상상력은 현실 속에 발을 딛고 있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저 자신이 먼저 독자 앞에 진실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지. 그럼에도 꾸준히 해쳐 나가야겠지요.”



배세복 시인

2014년 광주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배세복 시인이 최근 시집 ‘두고 온 아이’ (상상인)를 펴냈다.

지난 2021년 두 번째 시집 ‘목화밭 목화밭’을 발간한 지 2년 만에 새 작품을 들고 독자 앞으로 다가온 것.

2년 전 그는 “시에 더 신경이 많이 가고 더 많이 써야만 버틸 수 있다는 것”이란 말로 시 쓰기의 어려움과 창작의 의미를 말했다.

배세는 얼마전 제1회 선정작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선정작가상은 시 전문지 ‘상상인’과 선정문학상 운영위원회가 주관했으며, 배 시인의 ‘추녀는 치솟고’ 외 4편이 선정됐다.

현재 충청도에서 국어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관계로 배 시인과는 전화로 시집 발간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제 자신의 내면을 이야기하다가 어느새 이 이야기들이 보편성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그러기 위해선 더욱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서사를 끌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사성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구성하다 보니 그 속에 서정이 깃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누구나 유년 시절의 ‘두고 온 아이’가 있을 것이고 제 기억의 편린들로 ‘누구나의 아이’를 불러오려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이해되는 대목이다. 누구나 내면 깊은 곳에는 ‘두고 온 아이’가 있을 거였다. 그러나 그 아이는 대부분 내면 깊숙한 곳에 숨어 있을 것이며 대체로 외로운 정서에 갇혀 있을 듯했다.

다양한 시면들은 기억의 편린들을 매개로 오래 전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있다. 물론 풀어내는 주체는 시적 화자일 것이다.

이번 시집에 대해 시인인 황정산 평론가는 “그의 시들은 서정을 통해 서사를 만들고 또한 서사를 통해 서정을 강화한다. 그래서 그의 시들을 읽으면 ‘서정적 서사’ 또는 ‘서사적 서정’이라는 문학 이론서에 없는 새로운 조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고 평한 바 있다.

배 시인은 서정과 서사 어느 한쪽에 무게를 두지

않는다. 리얼리티라고 하는 사실성에 방점을 두면 서도 그것을 서정적인 목소리로 형상화한다. 그 서정성은 상상력과 함께 결합돼 다시 이야기로 구현된다는 점에서 이채롭다.

“안개주의의 속이 이정표가 서 있고/ 길 끝에 그가 있다는 표식이다/ 병은 눈두덩을 부벼냈으나/ 발끝은 돌부리를 지나치지 못했다/ 어떠한 사실을 잊을까 봐/ 손바닥에 글씨를 쓰던 시절이 있었다/ 어린 병이 높고 있다/ 짙단에 쌓이는 뱃누리를 헤집고/ 그가 고향을 질렀다”

위 시 ‘이정표가 있었’은 어린 시절 짙단을 쌓아둔 눈에서 눈을 때를 묘사한 작품이다.

기성세대들은 한번쯤 경험했는지 추억과 풍경들이 그려져 있다. 이렇듯 작품집에는 곳곳에 ‘두고 온 아이’들이 존재한다. 시를 읽으면서 독자들 또한 ‘두고 온 아이’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두고 온 아이들을 잘 위로해 주어야 해요”라고 시인이 ‘시인의 말’에서 무심한 듯 건네는 말은 시인 자신에게 하는 말인 동시에 모든 독자들에게 건네는 당부의 말이다.

교사를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에 그는 “방학을 이용해 시를 쓴다”고 했다. “방학 기간만큼은 이틀에 한 편 정도는 쓰려고 집중합니다. 그때는 머릿속이 온통 시로 가득 차요. 방학이 아닌 기간은 시도 안 나올뿐더러 시보다는 학생들과 교과 수업에 집중해야 하니 방학이야말로 좋은 창작 기간이라 할 수 있지요.”

시인은 지난해에는 시를 많이 쓰지 못했다. 그러다 올해 봄물 터지듯 시가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특히 올 여름방학에는 도서관을 다니면서 하루 한 편 쓰고 그다음 날 전날 쓴 시를 고치면서 온통 시 창작으로 방학을 보냈다”며 웃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새 시집 한편 분량이 완성됐다는 것이다.

앞으로 계획을 물었더니 “다시 시를 쓰는 것”이라는 말이 돌아왔다. 진부하지만 가장 적합한 답이다. 부지런히 시를 써서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싶다는 것이다.

“역사 서사시거나 영웅 서사시가 아닌 아주 평범한, 평범하다 못해 시대에 뒤쳐진 자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저도 자못 기대됩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크리스마스이브엔 ‘장사익 소리판’

4년만에 전국 투어... 24일 광주예술의전당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등으로 한동안 광주를 찾은 전문 관객들의 공연도 만나보기 어려웠다.

4년 만에 소리꾼 장사익이 처음으로 전국투어 겸 광주공연을 연다. 행복을 뿌리는 판이 ‘2023 장사익소리판 사람이 사람을 만나’를 오는 24일 오후 6시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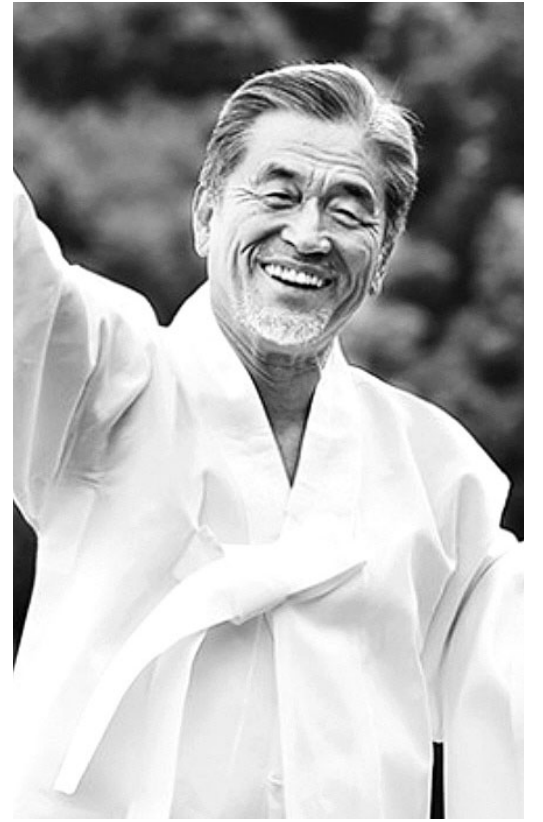
소리꾼 장사익은 1994년 40대 중반에 ‘장사익 소리판 하늘 가는 길’로 데뷔, 우리 소리를 잘 전달한다는 평가를 받아 온 소리꾼이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한편, tv 프로그램 ‘불후의 명곡’ 등에 출연해 대중에게 큰 재능을 각인시켜 왔다.

젊은 시절에는 이광수 사물놀이패에 들어가 태평소를 연주하다가 1994년 후배 피아니스트 임동창의 제의로 소리에 입문, 이듬해 대표곡 ‘질레꽃’을 발매해 음악 애호가들의 호평을 받았다.

공연은 힘든 시기를 버텨낸 광주 시민들에게 전통의 소리로 흥을 선물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다. 1994년 이래 2년마다 열리는 ‘장사익 소리판’을 4년 만에 전국투어 형식으로 열은 그의 의미를 더한다.

장사익이 시를 모티브로 창작한 노래들을 들려줄 예정이다. 허형만 시인의 ‘구두’, 서정춘 시인의 ‘11월처럼’과 한상호 시인의 ‘뒷집’을 부르고, 대표곡 ‘질레꽃’도 들려준다.

음악감독은 정재열이 맡았다. 재즈 1세대 연주자로 손꼽히는 최선배가 트럼펫과 하모니카 연주



소리꾼 장사익

를 보여준다. 베이스는 정영준이 연주한다. 피아노는 앤디 김 협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성 소수자 사랑과 인생 ‘햇빛 속으로’

배봉기 작가 소설 ‘햇빛 속으로’ 발간 ...편견·차별·희망 이야기

우리 사회 동성애 문제는 여전히 금기시되는 부분이 있다. 인권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어떤 특정 사안을 바라보는 데는 시각차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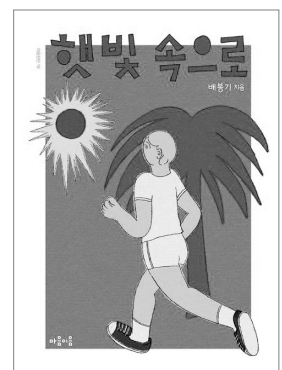
동화와 청소년 소설, 희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펼쳐온 배봉기 작가가 청소년 소설 ‘햇빛 속으로’ (마음어음)를 펴냈다.

이번 소설은 성 소수자, 그 중에서도 남성 동성애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작품이다.

작가는 “인류의 중요한 가치가 그러하듯 인권도 역사를 갖고 있다”며 “그 역사는 편견 혐오 차별과 싸우면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지향하는 투쟁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고 창작 배경을 설명했다.

주인공은 중 1 때 같은 반 남자아이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낀다. 자신의 내면에 자리잡은 성 정체성을 감지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주인공은 경멸과 멸시라는 혹독한 현실과 마주해야 한다. 그로 인해 그는 아주 깊은 지하실에 자신을, 내면의 진실을 가둔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고2가 된 주인공은 다시금 정체성을 직면하게 된다. 연극만 예술 강사로 온 선배에게 또 다시 끌리게 되는 상황과 마주



한다. 주인공은 오랜 심리적 갈등 끝에 ‘지하실’에 갇힌 자신에게 자유를 줄 것을 결심한다. 마침내 학교 축제 무대에서 커밍아웃을 하게 되는데...

배 작가는 “이번 작품은 성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직시하면서도 그런 현실을 달고 미래로 향하는 전망을 다뤘다”며 “힘난한 고통의 길일지라도 자신의 ‘사랑’과 ‘인생’을 그 진실을 정직하게 마주하며 견안고 나가는 삶을 그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배 작가는 소년중앙문학상과 계몽문학상에 동화, 문학사상에 장편소설, 삼성문학상에 희곡 등이 당선됐으며 다양한 분야의 창작활동을 펼쳐왔다.

현재는 광주대 문예창작과에서 명퇴한 후 ‘동화·청소년 소설 아카데미’를 구성해 작가 및 작가 지망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박물관 45년 전 모습 찾습니다

다음달 18일까지 사진 공모... 1978년 12월 6일부터 1년간 촬영 사진

국립광주박물관은 지난 1978년 12월 6일 개관했다. 당시 수중 발굴된 신안해저문화재를 비롯한 호남지역의 문화유산을 보관하기 위해 건립됐으며 무엇보다 광복 이후 우리 손으로 지은 최초의 지역 국립박물관이다.

올해로 개관 45주년을 맞은 광주박물관은 호남 문화유산의 ‘보물창고’라는 의미 외에도 향후 ‘아시아 도자문화 실�크로드’의 거점이라는 측면에서

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45년 전 광주박물관의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사진을 찾고 있다.

광주박물관(관장 이애령)은 내년 1월 18일까지 옛 사진전을 공모한다. 대상은 1978년 12월 6일부터 1979년 12월 6일까지 개인이 촬영하거나 소유한 사진으로, 광주박물관의 역사와 정취를 담은 장면이면 된다. 구체적으로 박물관을 배경으로 활

영한 사진을 비롯해 전시실을 찍은 사진, 박물관을 단독 촬영 사진, 박물관이 나온 인근 지역 풍경 사진 등이 대상이다.

결과는 오는 2024년 1월 31일 개별통보와 함께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사진(20점)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며 참여자에게는 기념품을 지급한다.

이애령 박물관장은 “45년 전 박물관의 모습은 그 자체로 역사적 가치를 담은 콘텐트”라며 “향후 발굴된 대체로운 자료들은 광주박물관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자료 외에도 아카이브 구축에도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02-5090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